

만사대평

2017년
8월호



▲ 제 펠리토 작가의 '송고한 자연' 시리즈 작품, 삼지공원과 인근 골목

◀ 제 펠리토 작가의 '송고한 자연' 시리즈 작품, 강강이에술마을 생활문화센터 건물

올라! (Ola) (브라질어로 '안녕하세요')

제 펠리토 작가의 '자유, 희망 그리고 평화'

지난 6월 29일 강강이에술마을 2017 페인팅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데닐로 제 펠리토(Danilo Zéh Palito, 이하 제 펠리토) 작가.

그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약 13일 간의 작업을 마치고 지난 7월 15일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으로 어두웠던 삼지공원과 공원 부근 골목이 환해졌는가 하면, 강강이에술마을 생활문화센터는 이국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봉황, 두루미 등 이번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새'는 자유와 희망을 나타낸다고 하죠.

제 펠리토 작가의 작품을 통해 마음이 두둥실 날아오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요코(일본), 구현주(한국) 작가와 함께한 평화엔지니어링 외벽 작품



▲ 제 펠리토 작가 모습



① 삼지공원과 인근 골목

② 생활문화센터 외벽

③ 평화엔지니어링 외벽

대평동 마을회 건물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대평마을회관을 멋지게 재건축하기 위해 공사 시작에 앞서 맑은 물, 과일, 떡, 고기 등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들여 천지 신령님에게 고사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영완 대평동 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해 주요 운영위원 분들, 이집운 노인회장님과 박대수, 홍삼만 전 대평동 마을회 회장님, 영도구청 도시재생추진단 윤종학 단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들, 문장용 남향동장님과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김두진 단장님, 이승욱 예술감독 외 사업단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축문 집사는 김성호 어르신께서 맡아 주셨으며 건물 증축과 보강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자르게 될 두 그루의 나무를 위해서도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신명덕 장인의 손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새로 태어나 다시 대평동 마을회관 곳곳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축문 낭독을 마친 후에는 모두 절을 하며 한 마음으로 천지신령과 영도 할매에게 대평동 마을회관이 재건축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글·김동진 편집위원 | 사진·홍석진



남향동주민센터, 동민을 향한 17년의 따뜻한 정성



남향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정나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7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대상 주민 분들의 댁을 직접 찾아가 밑반찬(혹은 달걀이나 남향동주민센터 하늘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채소류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찬 전달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15명이 한 조를 이뤄 진행 중입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런 활동이 주변에도 많이 알려져 여러 식당들의 반찬 후원과 후원금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정나누기 사업'을 17년 간 꾸준히 진행해주고 있는 남향동주민센터 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글 및 사진·이종렬 주민기자



2017년 제2기 마을정원사 참여자 모집

깡깡이예술마을 마을정원사 동아리는 예술가와 함께 화분을 만들고 식물도 심어 동네를 파릇파릇하게 가꾸는 동아리입니다. 식물 가꾸기나 수공예품 만들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대 상** 대평동 주민 누구나 (수강료 무료)
- 활 동 기 간** 2017년 8월~10월
- 모 임 장 소** 깡깡이예술마을 생활문화센터
- 신청 및 문의**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T. 051-418-1863



예술가를 만나다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쌈지공원' 백성준 작가



▲ 백성준 작가

▲ 쌈지공원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2가 36-2 또는 한성세탁소 옆 골목 안쪽)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조각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조경 작업도 함께 하고 있어서 쌈지공원처럼 과거에도 공원 만드는 일을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처음 강강이마을을 방문 하셨는데요. 공원이 될 공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원을 만들 자리가 생각보다 협소했고 그늘과 녹지가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삭막하기도 하고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공원을 조성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 주민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나 유지 부분에서 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이 중요했죠. 지금 보니 생각보다 관리가 잘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그리고 집들이 붙어있고 골목도 좁잖아요. 주민 모두의 마당, 정원, 쉼터가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인근 주민 분들과 마을정원사 동아리 분들의 노력으로 공원에 꽃밭이 조성되었고, 최근에는 벽화까지 새로 그려지면서 쌈지공원에 더욱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주민 분들이 잘 가꿔주시고 이용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녹색을 많이 못 보여드려 아쉬웠는데, 변화과정을 보며 아쉬움을 많이 덜었습니다. 2~3년 뒤면 가운데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늘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무 옆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로 돌담을 쌓았어요. 더 많은 분들이 앉았다 가실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을정원사 동아리 활동 모습



쌈지공원 조성 전



쌈지공원 조성 후 (2016년 하반기)

마지막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녹지 공간이 좁아 일부러 펜스를 만들었습니다. 펜스에 넝쿨 식물을 가꾸 공원 벽면까지 녹지화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요. 잔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쳐내주시면 깔끔하고 산뜻하게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쾌적하게 잘 가꾸고,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인터뷰·강강이예술마을 사업단 김선영 운영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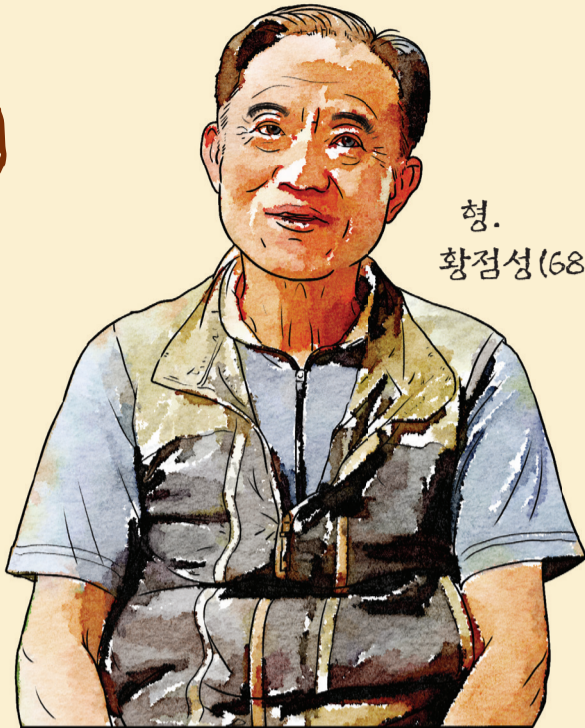
쌈지공원 현재 모습 (2017년 7월말)

예술가를 만나다

대평동 부품 제작의 시작

장인(匠人) 형제의 진영목형

* 목형 : 주물 틀(거푸집)을 만들기 위해
실물 크기와 똑같이 만든 나무 모형



형.
황점성(68)



아우.
황갑성(57)

지금의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황점성 시작한 지는 48년 정도 됩니다.

황갑성 나는 형님보다 한 십여 년 이상 늦지요. 35년 정도 됩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황갑성 쇠로 주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틀이 있어야 해요. 흙으로 틀을 만들려면 그 전에 나무로 형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목형이라고 하거든요. 물건을 가져오면 크기도 똑같이 해서 도면을 만들어야 해요. 도면 만들면 나무를 재단해서 조립하고. 마지막 검사를 해서 주물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형이란 말이 참 낯선데요.

황갑성 목공은 아는데 목형은 처음 들었죠? 나이 든 사람들은 '기가다(きがた, 목형의 일본어표현)'라고 하면 아는데 목형이라고 하면 몰라요. 일반적으로 주물을 만들기 전에 나무를 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기관이나 엔진을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로 어떤 걸 만드시나요?

황점성 엔진 헤드라든지 피스톤, 펌프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부피도 크고 생긴 것도 복잡해서 목형이 있어야 주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보면 목형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가요?

황점성 배의 엔진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설계가 나와야 하고, 설계가 나오면 기관이나 부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형이 있어야 주물 틀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주물 공장에 가서 쇠물을 부어서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작은 철공소에 가져가서 가공해야 하나의 부품이 됩니다. 그걸 배에 조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철공소도 없고, 엔진을 못 만든다고 봐야지.

황갑성 일종에 반찬에 양념 같은 존재고. 그게 들어가야지 모든 게 형태가 나오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게 빠져버리면, 양념 안 들어가면 맛없잖아요. 목형은 중요한 거죠.

작업하실 때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황갑성 전에는 끌 종류로 많이 했고. 대패라던가. 톱질해서 다 베어내고. 지금은 기계로 다하고.

황점성 그때만 해도 기계가 많이 없었지 예. 모타, 전기로 하는 건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만 해도 기계, 전기가 많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 모터를 가지고 이용해서 빠르게 하고 있죠.

입체적인 부품을 종이 위에 도면으로 그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황점성 그렇죠. 기계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



도면작업에 앞서 치수를 재는 모습



도면을 그리는 모습



나무 재단



조립

서. 엔진은 눈에 안 보이는 안쪽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든지 실력으로 도면을 그리죠.

황갑성 예를 들어 '수냉식 엔진'을 그리는데 까다롭죠.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는 구석 구석까지 연결되어 있어 물이 통하도록 되어있어요. 물을 순환시켜 엔진을 식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똑같은 형태로 목형을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어디라도 막혀 있으면 엔진이 터져버려요.

형님께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던데요. 동생분도 이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황갑성 형님 일하는데 놀러 왔다가 나무 빗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관심이 생겼죠. 처음에 형님이 영업만 하라고 했는데 영업하니까 재미없어요. 이거 빗고 하는 게 재밌어요. 하다 보니 35년이 흘렀네요.

황점성 처음에 동생이 한다고 했을 땐 제가 말렸지예. 문 하구로.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해서 또 뭐 하겠냐. 너는 머리도 좋고 하니깐 너는 수월한 걸 해라. 내가 많이 싫어했지. 그런데 굳이 달라붙었어요. 지가 꼭 하겠다고. 그렇게 기술을 배웠는데 아주 잘합니다.

과거에 비해 일이 많이 줄었나요?

황갑성 최근에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배가 많이 감적이 됐잖아요. 허름한 배 다 없애고. 그리고 목형을 써서 주물을 만들면 제품이 좋아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걸 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주면 재차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자꾸 물량이 떨어지는 거지.

30년의 세월 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를 남겨주고 싶진 않으신가요?

황갑성 지금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도에 몇 곳 되는데 다 60대나 50대 그렇게 밖에 없는 거예요. 20, 30대가 이리 데 와서 좀 배워주면 좋은데. 그게 제일 안타깝죠. 명맥이 끊길지도 모르죠.

황점성 시대에 따라 목형도 조금씩 달라 집니다. 옛날에 목형으로 다 했는데 금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 가지고. 지금은 금형으로 다 찍어내다시피 하죠. 플라스틱 그릇 만드는 것 같이.

황갑성 그런데 금형은 구불구불한 것까지 섬세하게 물을 통하게 하는 것은 아직 못하거든요. 껍데기만 가능하고. 말하자면 겉모양만 만들어 내는 거지, 안에 파지는 부분까지는 못 만들죠.

지금까지 목형을 만들어 오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황갑성 어떤 손잡이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과 똑같이 나왔을 때.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사진 찍은 것처럼 나왔을 때. 그럴 때 좋지.

황점성 어려운 물건을 하나 맡아서 제품으로 잘 만들고, 조립해서 기계가 잘 돌아간다 할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거지예. 그때가 제일 좋은 거지.

인터뷰 및 정리·우동준 객원기자 / 사진·평상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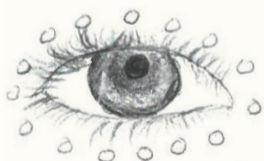


실제 부품과 완성된 목형의 앞, 뒤 모습 비교

100세까지 강강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눈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습관들

◎ 눈 주위를 살살 눌러서 마사지



◎ 당근·사과·소금주스 마사지



당근(400g) + 사과(300g) = 껍질째 주스 만들어 소금을 섞어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 노안은? 눈 근력(가까이 볼 때 수정체에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

눈에 독이 되는 습관

- **눈이 부었다고 열린 손가락을 눈에 대는 습관** 차가운 온도가 눈 안의 기름층을 파괴해 부드러운 기름샘을 뻑뻑하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은 오히려 눈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 습관** 손수건을 보관하는 장소는 주로 가방 안이나 주머니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에 의해 오염된 상태입니다. 눈에 직접 대기보다 눈가만 가볍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 **윗몸 일으키기** 눈의 실핏줄이 손상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눈을 젊게 만드는 습관

- **눈 찜질** 지퍼백에 팔이나 곡물 등을 넣고 수건을 싸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린 다음 수건에 싼 채로 3분 정도 눈을 찜질하면 눈 속 수분을 보호하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눈 제대로 깜박이기** 완전히 닫히도록 깜박여야 안구를 눈물로 코팅시킬 수 있다.
- **눈 운동하기** 3초 정도 눈 감기 -> 눈 뜨고 30cm 거리의 물건을 3초 정도 보기 -> 다시 3초 정도 눈 감고 -> 먼 곳의 물체 3초 정도 보는 것까지가 1세트 (총 5세트)

글 및 그림·이춘옥 주민기자

청학동 해돋이마을에 가라

* 지난 7월호 '현어문학마을에 가다'에 이어 깡깡이미를 주민기자 3명이 부산의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하고 남긴 후기입니다.

희제의 도시재생 마을 2

주민기자가 간다

01 청학동 해돋이마을은?

글 및 사진·이종렬 주민기자

영도구 청학 1동, 산비탈에 위치한 마을로 아름다운 이름 뒤에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한국전쟁 시기 거제포로수용소 사람들이 북으로 송환을 기다리며 잠시 머물던 곳이었는데, 갑작스런 휴전으로 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과거에는 '수용소마을'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영도에서 해 뜨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해돋이마을'이라는 희망찬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돋이마을의 자량은 뭐니 뭐니 해도 멋진 풍경입니다. 경사진 골목길을 올라가다 잠시 뒤편을 바라보니 부산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위에 올라서자 멀리 오륙도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해돋이마을이 일어설 수 있게 된 데에는 한 인물의 노력이 컸습니다. 바로 누구 집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이옥자 씨 덕분입니다. 40년 넘게 마을에 살면서 가스 배관 교체나 벽면 도색 등 마을에 필요한 많은 사업을 유치해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망대 식당에서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마을기금 마련을 위해 공동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현재의 해돋이마을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해돋이 마을의 자랑인 부산항 풍경



◀ 이옥자 위원장님

02 해돋이마을의 도시재생 사업

청학 1동 해돋이마을에서는 새뜰마을 사업이 한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 되고 있었는데 폐가 또는 허름한 집을 수리해서 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교육체험장'을 통해 집수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꼭대기에 있는 해돋이 전망대 건물은 1층 마을공동식당과 자갈마당, 2층은 카페, 3층은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돋이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이옥자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 전망대 건물은 국토부에서 지원받아 건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식당에서는 국수, 해물과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말(토, 일요일)에만 문을 연다고 하며 초창기에는 13명의 마을주민이 참여했는데 현재는 5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는 평일에도 음식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익은 그리 많지 않아 마을 염색공방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밥을 해주는 등의 활동으로 부대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식당 수익과 행복마을 사업으로 시작한 염색공방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해 독거노인 등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 해돋이 전망대



▲ 해돋이마을 집수리 교육사업

글 및 사진·이춘옥 주민기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03 해돋이마을과 셉테드 사업

청학동 해돋이마을은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에서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돋이마을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와 부산지방검찰청, 영도구, 동아대가 함께 한 부산의 셉테드 사업 제2호 대상지입니다. 마을에는 주민이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2곳에 비상대피소(안전지킴이존), 13곳에 안전반사경, 7곳에 비상경보벨, 12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덟 구간에 걸쳐 벽화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기 전에는 잔잔하게 도둑이 들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 비상경보벨



▲ 비상대피소

대평동도 올해 셉테드 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을의 실정에 맞도록 설계되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글 및 사진·김동진 편집위원

고모 식당

김순연 (66, 대평동 거주)

조선소 앞에서 식당을 했었다
아침 일찍 밥을 해서 배타는 사람들
삼시세끼을 해서 주었다
배가 조선소에 올라오면 배에서 밥을 못해서 먹는다
식당에서 밥을 다 먹는다
고등어 배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온다
보름에는 달이 밝아서 고등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소에 배를 올려서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기 때문이다
배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조선소는 시끄러워진다
배 씻는소리 깡깡이 망치질 소리 정말 시끄럽다
덩달아 우리 식당도 바쁘다 삼시세끼 밥해서 주고
참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정신없이 온종일 바쁘다 일손이 모자라서
누구라도 오며 거들어 주고 갔었다
그때 하루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

고모 식당

자은이 김순연
조선소 앞에서 식당을 했었다
아침 일찍 밥을 해서 배타는
사람들 삼시세끼을 해서 주었다
배가 조선소에 올라오면 배에서
밥을 못해서 먹는다
식당에서 밥을 다 먹는다
고등어 배는 한달에 한번씩 들어온다
보름에는 달이 밝아서 고등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소에 배를 올려서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기 때문이다
배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조선소는
시끄러워진다 배 씻는소리 깡깡이
망치질 소리 정말 시끄럽다
덩달아 우리 식당도 바쁘다
삼시세끼 밥해서 주고 참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정신없이 온종일
바쁘다 일손이 모자라서
누구라도 오며 거들어 주고 갔었다
그때 하루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

* 이 시는 김순연 어머니가 작성하신 것으로, 조선소 앞에서 식당을 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쓰신 작품입니다.

정리·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이혜미 재정팀장

시화동아리

팔이 쥐고 있는 고유의 맛을 살린 대평동 '빙수'가게

깡깡이마을의 여름은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늘이 별로 없구요 이 공장 저 공장 할 것 없이 기계가 연신 돌아가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죠. 하지만 그 점이 이 마을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진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곳, 삶의 뜨거운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깡깡이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더위에 허덕이다 우리는 한 빙수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곤 이 집 팔빙수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팔' 본연의 맛이 일품인 곳입니다. 그 비결은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주소 ·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34번길 9-4

“내가 팔빙수를 한 번 만들어볼라고 큰 깡통에 들어있는 팔을 샀는데 먹어봤더니 목이 깔깔하게 안 좋더라고. 뭐 다른 게 들어서 그런가 싶어 나는 내가 팔을 사다가 직접 삶는다.”

국산 팔을 사서 매일 아침마다 삶고 있다는 주인 아주머니. 본인이 먹어도 팔이 워낙 맛있어서 과일이나 다른 걸 전혀 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씹는 맛 때문에 딱만 조금 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유와 함께 비장의 무기인 '뭔가'가 들어가는데 이게 신의 한수입니다. 전체적인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입안에 달콤한 향기가 돌게 하는 바로 이것! 이걸 직접 먹어보고 알아맞춰 보시면 어떨까요?

대평동 맛집탐방기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소식

**강강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독일 ECB(Hendrik Beikirch) 작가 2017 페인팅시티 프로젝트 참여

독일 출신의 ECB(본명 Hendrik Beikirch)작가가 2017년 페인팅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8월 3일 부산 강강이에술마을에 왔습니다.

ECB는 유럽, 호주,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그래피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 그래피티 작가입니다. 현지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ECB 작가는 현지인의 모습으로 그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하는 작업에 능숙합니다. 2012년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 광안리 활어직판장 주차타워에 '어부의 얼굴'이라는 대형 작품을 남긴 바 있습니다.

ECB 작가가 작업할 장소는 대동대교맨션 외벽이며 8월 3일부터 약 열흘간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또 어떤 인상적인 작품을 선보여 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NFO

- 「만사대평」에서는 지면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공공도서관, 영도구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 * 광고를 신기 원하는 분은 강강이에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강강이에술마을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We Listen> 강강이에술마을 소리디자인 체험교실

강강이에술마을 공업사의 망치질 소리,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뱃고동 소리, 주민들의 정겨운 말소리 등의 소리를 채집하고, 나만의 소리로 개성있게 편집해보는 소리디자인 체험교실입니다.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내용

- 시간 : 오후 1시 ~ 오후 4시까지 (1일 3시간씩, 총 3회 활동)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3회)

회차	일정	제목	프로그램
1회	8월 25일(금)	소리보물찾기/DIY마이크 만들기	소리의 이해
2회	8월 26일(토)	나만의 소리 디자인	나만의 소리 디자인
3회	9월 1일(금)	<We listen> 소리 디자인 발표회	워크숍 발표

모집 기간

2017.8.18(금) 오후 6시까지



공연예술 사운드 디자이너 전광표
서울 소리지도 <사운드 오브 서울> 기획
리사운드 컴퍼니 대표

모집 대상 및 인원(총 10명 내외)

만 16세 이상 청소년 및 청년
(강강이마을 지도 및 기념품 증정)

접수 및 문의 사항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T. (051)-418-1863
E. ydart2016@hanmail.net
Web. www.kangkangee.com

지면 광고

FOREST HEALING

산림 탐방형 숲 치유 프로그램

"지겨운 워크샵 말고 숲 체험
자연에서 위로 받는 숲 치유"

- 기업, 관공서 직무연수 프로그램
- 공무원 힐링 연수 전문 (1:1 맞춤형 상담진행)
- 유아, 청소년, 성인(일반) 숲 체험 프로그램
- 국내·외 힐링 투어 프로그램

포레스트 힐링센터 : 051-868-6454 / www.forheal.co.kr
<https://www.facebook.com/foresthealbusan>

그림에도 불구하고

2017.08.24 개봉

영도와 영도민의 삶을 담은 영화[그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만나요!
부산상영관: 영화의 전당, 극도예술관, 아트시어터 C&C, 롯데시네마 등
문의: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coop.cinesofa@gmail.com